

현대집합주거계획에 나타난 비정주적 특성에 관한 연구

A case study of the concept of 'non-sedentary' in contemporary multi-housing planning

김미경^{*1)}

Kim, Mi-kyo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n-sedentary in contemporary multi-housing planning through the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modern nomadic life. A document research method was used to analyze and classified the spatial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of the non-sedentary dwelling spaces since 20th century. Finally, today the applicable cases of non-sedentary space are as follows; the sharing housing, the adapting housing, and temporary housing for the multi-purpose spaces, huge spaces and the industrialization housing.

First of all, in order to conform the concept of nomadism, the theory and characteristics were divided into three aspects; The concept of thought of lines, events and Rhisome, and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fluidity, multiplicity and the non-hierarchy, that is mainly based on the philosophy of Gilles Deleuz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how the concept of non-sedentary dwelling space has been developed in what form and method they have been applied and interpreted in the historical background. It attempted to resolve the concept of movement and mobility through the experiment so that they might apply to the space of contemporary city.

Keywords : non-sedentary multi-housing, nomadism, mobility

주요어 : 비정주성, 집합주거, 노마디즘, 이동성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에서 거주에 대한 담론은 실재영역을 넘어 가상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현대인들은 하나의 고정된 장소에 정주하는 것이 아니라 유목적인 생활의 영위로서 일정한 장소에 정착하지 않고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 다니는 노마드의 존재와 사유방식을 갖게 되면서 비정주적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유목적 패러다임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세대가족 출현, 독신자 비율과 이혼율의 증가로 1~2인 가구, 소위 '혼자 사는 인구'가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고전적인 가족 개념의 변화, 신 공동체 개념의 형성, 부동산 틈새 사업으로써 도시형 생활주택, 미니주택 등의 강세 등 새로운 양상들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현상은 가족중심의 정주개념에서 벗어나 현대의 유동적 생활양식을 향유하는 도시유목민을 위한 임대주거문화를 비롯하여 도시거주에 대한 비정주성 개념 정립에 대한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현대적 의미에서 비정주성이 지닌 이동성, 공간 및 기능

에서의 융통성, 미래에 발생할 확장과 이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성, 경제성, 임대료의 공간소유의 가치관에 대한 변화 등의 특성들로 인해 그것이 지닌 기술적, 공간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잠재력은 점차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영구성, 부동산이라는 기존 건축의 고착된 이미지와 비정주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주거개념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려는 사회 주류의 인식부족 탓에 그 발전 속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의 주거개념은 비정주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한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주거공간 중 집합주거계획에 나타나는 비정주성의 개념을 고찰하고, 이러한 개념이 적용된 사례분석을 통해 그 표현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있다.

2. 연구방법

위에서 살펴본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주적 개념의 출현배경과 유목적 사고관점에서 비정주성의 개념을 살펴보고, 둘째, 비정주성 개념의 공간전개양상을 이론적 고찰을 통해 파악한다. 셋째, 이론고찰을 통해 파악된 비정주성에 대한 공

*정회원(주저자), (주)케이비 실장, 숙명여대 디자인학부 강사, 이학박사

간표현특성을 기준으로 사례분석의 틀을 선정하고, 현대 주거공간에 나타난 비정주성 개념의 적용사례 분석을 통해 그 유형 및 표현특성을 파악한다.

II. 현대 집합주거계획의 비정주성 개념 출현의 배경

1. 현대사회의 유목적 패러다임

현대사회의 미디어의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은 전 세계를 네트워크화 하였고, 현대인을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경계로부터 해방시켰다. 우리의 일상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가능한 유비쿼터스 환경에 있으며, 이는 물리적 경계의 의미를 넘어서 현대사회가 경계의 영역을 넘나드는 유목적 사회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정주적이며 불확정적인 상태를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유목적의 삶인 패러다임은 다양성과 차이성의 긍정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차이'와 '다름'에 대한 사유로부터 출발한다. 이와 같은 유목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비정주성은 강요와 종속을 거부하고 개인중심의 자유로움과 유동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현대사회의 비정주적인 취향, 타자와의 차이성에 대한 승인 및 인정에 대한 욕구는 시대조류에 부응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2. 가족형태 및 가족개념의 변화

현대사회의 변화와 함께 가족형태의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형태의 가족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상호간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며 유기적 관계를 모색하려는 유연한 가족관, 즉 네트워크 가족관이 형성되고 있다. 가족구성의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예측은 핵가족화가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세대 가족이 출현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고전적인 가족의 개념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즉, 혈연이 중시되고 규칙과 규율이 지배적이었던 고전적인 가족개념에서 변화한 현대의 가족개념에 대해 현대인들은 피를 나눈 사람들에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또는 운명공동체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는 이전보다 더 많고 다양한 종류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며²⁾ 이에 따른 주거문화의 변화도 예측된다.

3. 현대사회의 변화와 신(新)주거개념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른 주거의 변화양상은 다양한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인의 몸만 이동해도 생활이 이루어지는 콘도미니엄식의 이동이 편리한 주거개념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언제 어디서든, 길을 걸어도 다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김검효(2003), 1인가구를 위한 도시주거계획,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현대사회의 유동적 환경에서는 공간이 지니는 아이덴티티와 개념형태가 파괴되고 있으며, 소유와 장소의 개념도 변화하고 있다. 즉 공간의 소유보다 공간으로의 접속에 대한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³⁾

이에 따라 현재는 주택소유가 대세이지만 앞으로 사회 전체가 접속의 시대로 나아가는 추세에 발맞추어 젊은 세대가 접속을 선택할 경우 주택임대가 서서히 주류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역과 기능간의 명확한 구분보다는 퓨전형, 컨버전스형의 생활문화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와 건축, 공간 디자인에 있어서도 공간과 조직의 가변성, 기능의 다목적성, 다양한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이 가치있게 평가될 것이다.

III. 유목적 사고관점에서 바라본 비정주성의 개념

1. 정주와 유목적

정주와 거주는 유사개념으로 사전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삶'의 의미로 인간이 장소에 결부되어 생활하는 감각을 말하며, 거주는 인간의 장소에 대한 행위나 감각을 모두 포괄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이데거는 '건립이 바로 거주함과 같고, 인간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하다 (building=dwelling=being)'는 것으로 정주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사회에 접어들어 건축에서 '건립 (building)'이 주된 과제가 되면서 정주의 개념은 변질되었고, 대도시의 거주가 추방된 곳 즉, '비거주 (non-dwelling)'가 근대 거주개념의 본질적인 특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⁴⁾

이와 같은 근대 거주개념의 변화, 거주의 상실은 곧바로 유목적 개념과 연결된다. 근대성과 탈근대성의 본질은 정주가 아닌 이동, 그리고 유목적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것이 비정주성의 개념을 바라보는 주된 사고로 대두되게 된다. 이처럼 유목적 정주와 대립되는 개념이긴 하나, 물리적 차원과 정보적 차원의 움직임이 극대화되면서 나타나는 현대의 유목적성은 정주성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제적인 선택에 의해서 환경을 재구성하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 또 하나의 새로운 거주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2. 유목적 사고와 비정주성의 표현특성

질 들뢰즈의 유목적 사고개념⁵⁾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

3) Jeremy Rifkin 저, 이희재 역(2001), 소유의 종말, 민음사, p.188

4) 하이데거는 이러한 거주로서의 건립은 건물을 세우는 일로서의 건립이며, 또 다른 하나는 세상에 살아있는 것들을 돌보고 가꾸는 일, 즉 경작으로서의 건립이라고 보고 있다. 강 혁 (2002), 거주와 건립에 관한 한 고찰, 건축역사연구 통권 32호, p.77

5) 들뢰즈는 유목적 사고를 노마들러지(nomadology)라 명하며,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인 펠릭스 가타리(Felix Guattari, 1930-1992)와 함께 유목적론을 전개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사상은 철학에서만뿐만 아니라 이미 영화나 정치학, 사회학에서 활발히

서 정의하는 비정주성의 개념은 공간적 측면과 가치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간적 측면에서의 비정주성이란 정주의 특성인 고정된 생활영역, 영구적인 구조, 정주적 장소성과 정체성을 거부하고 내부중심적 공간, 동일성에서 탈피하여 외부의 이질성과 차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그것을 해체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집과 집 사이, 집 밖을 거주공간으로 하고 공간의 내, 외부 경계를 소멸시키며, 열린 공간체계로서 평형상태, 좌표, 기준면의 가정을 부정하고 비중심성, 비위계성, 사이 공간을 강조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둘째, 비정주성은 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가치적 측면에서 중요한 특성을 보인다. 즉 고정되고 닫힌 것이 아니라 열리고 교통하며, 새로운 생활양식을 창출하는 유동적 거주방식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고, 장소를 중심으로 했던 공간적 사고보다 계속적인 흐름을 유발하는 시간적인 사고가 중시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정주의 의미가 아닌 변화의 그 순간, 즉 사건의 순간이 중시되며, 생성, 운동, 변화 등 역동적인 에너지들을 사유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게 된다.⁶⁾

이를 통해 비정주성은 정주성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닌 인간의 능동적 사유와 선택을 통해 환경을 재구성하는 것이며, 다음 표 1과 같이 '유동성', '일시성', '비위계성' 등의 세 가지 주요특성을 갖는다.

표 1. 유목적 사고에 기반한 비정주성의 표현특성

유목적 사고 개념	사고의 특성	비정주성의 표현특성
선의 사유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상기하학적 공간 -점이 선의 경로에 종속 -사물의 상태는 관계 안에서만 특정의미 획득 · 탈주선의 운동-경계의 이탈 · 점의 위치가 모호- 	<p style="text-align: center;">유동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호한 공간의 경계 · 연속적인 표면 · 확장된 공간
사건 개념에 따른 생성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의 공간 -일시적,우연적 사건 생성 -운동과 변화의 사유 -변화하는 순간에가치부여 -불규칙한 사건의 계열화 및 예기치 못한 사건연결 · 순간적인 사건-움직임의 우연성- 	<p style="text-align: center;">일시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벤트적 프로그램 · 우연적형태, 가벼움 · 사용자의 자율성
리즘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위계적 공간 -리즘:뿌리없는 식물구조 -리즘구조의 접속원리: · 이질성,비중심화,비위계적 · 리즘구조의 복수성 -접속,연결 · 새로운 질서체계 	<p style="text-align: center;">비위계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적공간구성체계 · 이질적 형태의 접합

논의되고 있는데, 들뢰즈와 가타리의 공저 '천개의 고원(Mille plateaux)'에서 밝힌 '유목적 사회론'은 변화하는 시대의 가치체계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다.

6) 이진경(2002), 천의 고원을 넘나드는 유쾌한 철학적 유목; 노마디즘 1, 휴머니스트, pp.425-426

IV. 현대집합주거계획에 나타난

비정주성에 관한 사례분석

1. 사례선정기준

유목적 관점에서 바라본 비정주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그 표현특성을 유동성, 일시성, 비위계성으로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현대집합주거계획에 나타난 비정주적 표현특성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에 앞서 본 연구에서 선정된 현대집합주거의 사례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본 연구의 사례는 비정주적 사고가 본격적으로 공간디자인에 나타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집합주거계획에 관련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2)각각의 작품들은 유명건축가들에 의해 발표된 작품 중 작가 스스로 유목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비정주적 특성을 계획개념으로 설정하였다고 제시한 작품들과 연구자가 비정주성의 특성인 유동성, 일시성, 비위계성의 표현이 적용되었다고 판단된 작품들로 선정하였다.

(3)본 연구의 사례는 실제 지어진 작품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나, 개념의 특성상 현실화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어 계획안, 국제공모전의 출품작 등을 사례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2. 사례분석

본 연구의 사례분석에 따른 공간표현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사례분석

작품	표현특성	
1. Saishun -kan Woman Dorm. Kazuyo Sejima (1991)		
	<p>유동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의 공유공간은 수면기능을 제외한 다양한 사적, 공적 행위들이 혼용됨으로써 침실공간 이외 다른공간의 경계는 매우 모호함 	
	<p>일시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의 공적공간은 일시적으로 다양하게 변화 거주자의 행위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이벤트적 공간으로 변화가능 	
비위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 공적공간이 갖는 상호이질적 특성 혼합 · 거실,복도없는 텅빈공간구성, 중심성없는 공간 	
	2. 실험주택 Kuma Kengo (1992)	
		<p>유동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한의 개인행위를 위한 사적공간만을 계획 · 집합주택 내에서의 사적, 공유공간 경계 모호
일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한의 개인생활행위 프로그램만을 제외한 모든 공적행위 프로그램들은 개인의 요구와 행위 프로그램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함 	
	<p>비위계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공간과 자녀공간으로 명확히 구분되었던 것 전통적 평면과 달리 철저한 개인공간의 집합으로 중심공간이 나타나지 않는 비위계적 공간 	

표 2. 사례분석 계속

3. Housing Units, Njiric+ Njiric (1993)		
	유동성	· 최소한의 개인행위를 위한 사적공간만을 구획, 집합주택 내에서의 사적, 공유공간 경계가 모호함
	일시성	· 욕실, 주방, 작업대 등 최소한의 기능만 고정, 그 외 공간의 순간적 변화에 대한 가능성
4. ABC system Manuel Gausa (1996)		
	유동성	· 기본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개별주거 속에 삽입되어 공간이 형성되므로 공간의 경계가 불분명함
	일시성	· 기본활동 유닛을 제외한 그 외 활동유닛이 선택적으로 삽입되면서 순간의 변화에 유동적 반응
비위계성	· 기본사적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적공간들이 여기에 공삽입되는 개념으로 전통적 공간분할방법에서 탈피하여 사적, 공적공간의 이질적 특성 혼합	
5. M house Manuel Gausa (2000)		
	유동성	-
	일시성	· 기본유닛(잠자기, 먹기, 요리하기, 목욕하기)외에 다른 활동들은 프로그램에 따라 선택적으로 조합, 거주자 요구에 따른 변화에 유동적으로 반응
비위계성	· 모듈의 결합에 따라 상호이질적인 특성들의 혼합: 기본활동유닛(사적공간)과 기타활동유닛(공적공간)의 혼합	
6. Vicente Guallart Sharing Tower (2003)		
	유동성	· 개인 공간과 공유공간의 경계가 불분명함
	일시성	· 거주자의 행위 프로그램에 따라 일시적 공유공간 형성 및 층별 평면계획의 유동성 · 공유공간의 프로그램의 변화에 따른 일시성과 변화가능성 제안
비위계성	· 사적공간과 공유공간의 중첩을 통해 상호이질적 공간요소를 통합 · 전체공간의 한계로 얼마만큼의 활동을 공유하는가 하는 것이 공간조직의 논리로서 전통적 평면구성에서 벗어나 중심성 없는 비위계적 공간구성	

V. 결 론

이상의 사례분석에서 현대집합주거공간에서 나타나는

비정주성은 전통적 가족개념의 해체에 따른 영역과 위계의 파괴를 표현하는 비위계적 공간구성과 현대인의 유동적 생활양식을 담기 위한 유동성과 일시성의 표현이 가변과 이동에 대한 공간구축방법을 통해 탐구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3. 표현특성 종합

구 분		표현특성	
유동성	공간 형태	공간을 구획하여 나누지 않고 비어두기	유연한 공간
		내, 외부 경계벽이나 내부공간의 분리벽 소거	열고 닫는 공간, 경계없는 공간
일시성	공간 프로그램	복합적, 미확정적 공간 프로그램	가변적 공간
		사용자의 선택에 맡기는 자유로운 프로그램	이벤트적 공간
비위계성	공간 구성 방식	불특정 사용자를 위해 다기능, 다목적 공간구성	다중적 공간
		영역, 위계의 파괴, 중심공간의 부재	비위계적 공간

이 두 가지 경향은 공간을 구획하여 나누기보다는 비워두고,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실보다는 공간의 기능에 대한 유연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의 불확정성과 비위계성, 이동성과 가변성 등의 표현특성은 각 실의 기능과 사용자에 따라 구획되었던 전통적 공간구성 양상에서, 불특정 사용자인 도시유목민과 이들을 위해 다중의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무작위적이고 비대응적 관계로 공간구성 양상이 전환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참고문헌

1. 강혁(2002), 거주와 건립에 관한 고찰, 건축역사연구, 11권 4호
2. 구민범(2006), 하이데거의 사방개념을 통한 현대도시의 거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김겸호(2003), 1인가구를 위한 도시주거계획,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김현하(2001), 단위와 커뮤니티의 해석을 통한 비정주적 주거 공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김희주(2004), 현대공간디자인의 노마디즘 개념과 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이진경(2002), 천의 고원을 넘나드는 유쾌한 철학적 유목; 노마디즘 1, 휴머니스트
7. Activity Diagrams(2008), 도서출판 담디
8. Jacques Attali, 21세기 사진, 정혜원 역(1999), 중앙 M&B
9. Jeremy Rifkin(2001), 소유의 종말, 이희재 역, 민음사, p.188
10. Noberg-Schulz, Christian, The Concept of dwelling; On the Way to Figurative Architecture
11. Robert Kronenburg(2002), Houses in Motion, Wiley-Academy
12. Robert Kronenburg(2002), Modern Architecture and Flexible Dwelling, Living in Motion, Vitra Design Museum
13. Robert Kronenburg(2007), Flexible Architecture that Responds to Change, Laurence King Publishing Ltd.